

구랍 12일 열린' 온택트 2020 서울붓다페스티벌—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하는 금강경 독송정진'에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3주간 참여한 500km의 만행결사 소감을 전하는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지난해 10월 6일 조계종 대웅전에서 열린 중앙신도회장 이취임식에서 신도회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C4면에서 계속

사찰과 신행단체가 함께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108개 사찰 외에도 유튜브 등을 보면서 동시법회, 동시기도 등을 하면 그 것 자체로 불국토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대면, 디지털화 등을 화두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교계는 사실 외부의 시대변화에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스님들이나 사찰이 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있었다. 눈물겹게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것말고도 불교 곳곳에서 다양한 포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 등에서 신행정보 등을 찾고 법문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많습니다. 성철 스님의 법문 등을 자막과 해설 등을 곁들인 콘텐츠도 많습니다. 행복바라미 캠페인 뿐만 아니라 불교계 행사들을 언택트,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노하우를 더욱 쌓아야 겠습니다. 한 사찰에서 법회를 연다면 전국 사찰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Q 교구신도회장으로 계시던 직지사는 2017년 승려복지회를 창립하고 교구 스님들을 위한 승려복지를 구체화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승보공양 운동이 승단 고령화를 맞는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가불자의 최소한의 의무는 승보공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는 최소한의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사공양(事事供養) 중 의식주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보면 의약, 즉 의료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종단 차원에서 승려복지회가 만들어지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도움을 받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스님들이 완전한 의료복지까지는 혜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수술을 하게 되거나 장기치료를 하게 되면 안타까울 정도로 방치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누가 출가를 하겠습니까.

스님들은 부처님 제자가 되어 중생을 구제하러 나섰는데,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분을 알고 다 하려고 하는 그 것이 사부대중이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구신도회장 당시 녹원 큰스님의 생전 법문에서 가슴이 뻥 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가불자가 깨어있어야지 불교가 산다' 는 말씀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의 도리를 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불교를 외호하고 삼보호지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제대로 그런 의무에 대해 얼만큼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할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Q 각자의 사업, 직장에 종사하면서 신도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교구신도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불교와의 인연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젊었을 적에 집 주변에 조그만 포교당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니게 됐는데, 불교라는 인식도 없었고, 하나의 신앙 정도로 있었습니다. 그때 인연을 맺게 된 스님께서 저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아이들 이름도 지어주시고, 공장 이름도 지어주시고, 착공때는 불공도 해주셨습니다. 출재가를 떠나 형님 동생처럼 지냈습니다. 스님이 일찍 열반하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투병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래 계셨는데 스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인연의 진중함에 오히려 스님들과 인연을 맺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회사의 연구소가 구미에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문득 연구소에 출근하는데 출근길에 있던 법당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법당에 앉아서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회사에 가면 일이 잘되는 것 같았습니다. 구미 도리사였는데 스님 한 분이 토요일이 되면 공단의 맞벌이 가구 아이들을 거두어서 돌봐주고 계셨습니다. 아이들

구미도리사 육아교실서 불연
불자 본분이 '불교중흥' 확신
법등 스님 언행에 감화 받아

승보공양 10만 8천배로 발원
8개월 만에 목표치 초과달성
"불자역량 모으면 충분히 가능"

을 차로 데리고 와서 간식을 먹이고 절에서 놀게 하는 '소나무야 놀자' 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담당 스님을 찾아가서 '제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하고 아이들 간식비를 지원했습니다.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났습니다. 한번은 그 절에 조금 늦게 가서 저녁공양을 먹고 있는데 그 절 회주이신 법등 스님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차 한잔 하고 가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시주를 한 것을 들으신 모양이셨습니다.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오체투지〉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보고 절수행을 하자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부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절에 가게 됐습니다. 절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마음을 내서 1주일간 절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하루 1000배씩 108일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절도 하고 남는 시간에 불교 책도 보고 스님들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하면서 불심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당시에 '아! 불교는 기복이 아니고 깨달음의 종교구나' 라고 불교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신도로서 활동을 하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법등 스님은 교구장 스님이셨는데 교구신도회장을 맡아줬으면 하셔서 '저는 하면 안 됩니다. 잘 할 줄도 모르고 말사신도회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스님께 누가 됩니다' 했더니 스님께서 '누는 아프리카에 있는거다' 고 딱 잘라 말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Q 평소의 신행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와 중앙신도회장을 맡고 나서 신행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특별할 것이 없고 절수행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걷는 것도 많이 합니다. 걸으면서 사색을 많이 합니다. 저는 신도회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구신도회장이 됐을 때 사실 얼떨떨했습니다. 교구신도회 구성인데 교구신도회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막막했습니다. 교구신도회장 취임 첫해에 교구장 스님께서 직지사 승려복지회를 구성했습니다. 종단 승려복지회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으로 교구신도회장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해 가을에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니 낯이 뜨거웠습니다.

회의에 처음 참석해보니 재원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급여 부분 등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장기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6년 뒤에는 막막하다는 말과 스님들이 스스로의 노후에 걱정이 많고, 나서시는 모습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승려복지회에 일정 금액을 출연을 하고 생각해보니 승보공양은 신도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모두가 회의적으로 봤는데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님들 승려복지하는데 1억이 필요한데, 3000명만 모아서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면 1억이 넘는다. 60개 사찰에서 각각 평균 50명을 모으면 3000명이다. 탁발하는 스님들을 십시일반 공양올리듯이 해보자' 고 했습니다. 승보공양 3000명 동참 발원 1000배 기도를 신도회장들과 하고서 8개월 만에 1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불자들이 엄청난 신심을 갖고 있지만 힘을 모으는 방법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불교신도층이 더 두꺼워지고, 넓게 만들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 헌신할 것입니다.

Q 주 중앙신도회장님의 인생의 좌우명이나 혹은 스님들로부터 감명받은 법문, 혹은 삶의 철학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신 스님들은 행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법등 스님께서는 사찰관리에서부터 솔선수범하셨습니다. 절을 하나 운영하는 데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교구본사는 관리할 것이 많습니다. 저는 큰스님이 되면 오히려 편하게 지낼줄 알았습니다. 교구장을 할 때 보면 일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 였습니다. 스님은 매일 망원경을 들고 기와지붕을 점검했습니다. 물이 새면 기와지붕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가며 매번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방댐 준설 때도 직접 포크레인 끌고 오게해서 작업지휘를 했습니다. 팔다리 걷어붙이고 대소사에 직접 나서는 것을 보면서 행화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Q 끝으로 2021년은 희망의 한해로 불러도 될 만큼 코로나 극복과 국운 융창을 바라는 불자들의 마음이 큽니다. 새해를 여는 희망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한해는 힘든 한해였습니다. 지금도 막연하지만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본분을 다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불교가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재가자가 먼저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각자 최선을 다하면 해결될 것이라 봅니다.

신도회장 취임 후에 만행결사에 21일간 동참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고행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스님들께서 앞장서는 것을 보며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다하면 불교 중흥이라는 말이 따로 필요 없다는 말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코로나도 극복이 되고 새로운 가치가 다가 올 것이라 봅니다. 모든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행복한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축년 마음이 넉넉해지는 자비도량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행복명상 배워요!



대광사 명상상담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본 대학은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상담대학으로, 대승의 보살정신을 기초하여 기본, 심화, 전문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자기소외 등을 명상과 심리 상담 치유와 올바른 자아성찰을 통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과 정	강의시간	교과목		자 격	전형요강
空 기본 (1년)	【화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불교개론(연기, 공) • 명상과 상담의 이론과 실제	1)자격심사 없음 (연령,학력,종교 불문) 2)명상과 심리 상담을 배우고자 하는 자	1차 : 서류전형 • 입학원서 • 사진2매 (반명함) 2차 : 면 접 대광사 종무실 접수
		2학기	• 명상(이론, 실기병행) • 사념처관법		
假 심화 (1년)	【수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 대승 반야사상	1)명상과 상담 1학년을 수료한 자 2)1학년이상의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과정을 취득한 자	
		2학기	• 성격심리학 • 유식과 명상		
中 전문 (1년)	【목요일】 1교시 19:00 ~ 20:20 2교시 20:40 ~ 22:00	1학기	• 천태소지관 • 상담응용	1)명상과 상담 2학년을 수료한 자 2)정규 명상과상담 2년 과정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2학기	• 자비명상		
요 가	【화요일】 오전 10:30 ~ 11:50	• 테라피 재활 요가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접 수

■ 수강료 : 1학기당 17만원 ■ 교과배정 비율 : 이론70%, 실기30% - 불교교리 30%, - 심리상담 40%, - 명상 30%

분당 대광사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TEL) (031) 715-3000 / (FAX) (031) 715-3409